

Open Doors

2019. 06. Vol. 206

박해와 선교현장

이스라엘 *Israel*



오픈도어 6월 캠페인

박해의 숨은 희생자 :

어린이와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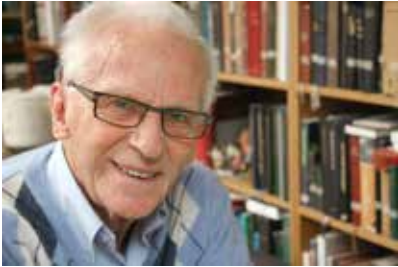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주의 기도(6)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 6:13)

이 기도로 우리는 전투에 대비하여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 기도 역시 이기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면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제자매가 공격을 당하게 내버려두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나는 탁월했던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이 몇 년 사이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를 볼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한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했다면, 그가 그러한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탁월했던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몸의 한 지체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며 우리는 모두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막기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말해야 한다.

나의 형제가 쓰러지는 것을 볼 때, 형제를 지키는 자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그리고 그가 쓰러졌을 때 어떻게 어떤 이유로 쓰러졌는지 상관없이, 그가 회복되어 한 몸의 한 지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피상적인 관계를 갖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사단은 단지 우리가 피상적인 삶을 지속하기를 원한다. 나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 속에도 퍼져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나는 심각하게 생각한다. 내가 아는 한 어떤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 무서운 위협에 대해 적절하게 경고하지 않았다.

CONTENTS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 XII



06 박해와 선교 현장
이스라엘(Israel)

10 어린이, 청소년 캠페인: 스토리
치복(CHIBOK)의 여자 아이들 외

14 2019년 박해 지도

16 어린이, 청소년 캠페인: 사역
북부 이라크 어린이 성경배달 사역 외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22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23 박해의 숨은 희생자 어린이·청소년 돕기 캠페인



OpenDoors 2019년 06월호 | 통권 206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근, 박윤환,
이동현, 배준섭,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 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 _오현정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나오미, 레아, 수지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_이종만 목사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양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XII

드보라

탈출에 실패하고 집결소로 끌려갈 때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는 줄 누가 알았으랴.

집결소에 가셔도 강제노동은 피할 수 없었다. 집결소에 도착했을 당시는 여름이었다. 우리는 주로 김매기를 하러 다녔다. 인솔하는 간부를 따라 농기구도 없이 그냥 맨 몸으로 줄 세워서 언덕을 올라가보니 넓은 콩밭이 있었다. 거기서 모두 엎으러 일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도구가 없으니 당연히 맨손으로 콩을 돌아주고 잡초도 뽑는 작업이었다. 맨손으로 김을 매니 손이 안 다칠 수가 없었다. 비료도 없어 그저 척박한 땅은 딱딱하게 굳어 흡사 돌덩어리 같았고, 그 땅을 손으로 갈아엎으려니 손 끝에 피가 나고 손바닥이 다 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콩밭은 간부 가족의 밭이었다.

새벽에 식전 작업도 있었다. 간부는 집결소 화장실에 인분 말린 것을 가지고 매고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자루에 냄새가 정말 지독했다. 코를 찌르는 냄새를 애써 외면하며 길을 올라가니 무와 배추를 심기 위해 밭을 갈아놓은 곳이 있었다. 그 곳에 장갑도 없이 맨 손으로 인분 말린 것을 쪽 뿌리고 그 위에 씨를 뿌렸다. 식전

작업으로는 최악이었다. 제대로 손 씻을 곳도 없으니 그 구린내 나는 손으로 밥을 먹어야 했다. 간수들의 취급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인간다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짐승의 생활이었다.

숙소 배치가 있었다. 우리 숙소로 배정된 곳을 보니 두 평도 안될 것 같은 곳에 32명이 배치가 되었다. 낮에 야 다 일 나가니까 그렇다지만 밤에 잠을 청하려고 하면 32명이 누울 만한 공간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 별 수 없이 서로 다리를 접고 기대며 눕는데 이와 빈대가 득실거렸다.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감방 안은 다들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이 있었다. 한 60대 초반쯤 되었을까 싶은 할머니였다. 이 할머니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말하는 것이 참 긍정적이었다. 이 곳에 뭘 긍정적일 만한 것이 있는지 신기하다 싶어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 할머니가 자기를 공주라고 했다. 특이한 것을 넘어서 무슨 미친 사람이다 있다 생각하고, 어의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나도 다 젊을 때는 잘 대우받았다고 하면서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미쳤다고 욕하고 지나쳤다.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자기가 공주라고 하니 혹시 부자집 딸인가 하고

고 생각했다.

미쳤다고 지나친 그 할머니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떻게 살던 사람이길래 이 짐승 같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평온한 모습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시기가 났다. 게다가 할머니는 계속 자기는 곧 나간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무슨 부자 친척이라도 있는 것 같다.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좋은 관계로 지낸다고 손

해 볼 것은 없으니 할머니와 친하게 지냈다. 친해지니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할매는 중국에서 10년 만에 북송당했다. 자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5년 전 즈음에 북에서 차 사고로 며느리와 함께 죽었고 5살배기 손자만 남겨졌다고 했다. 할머니 혼자서 도저히 5살배기 손자의 생계까지 책임지며 살 수 없어서 꽃제비 짓을 하며 겨우 먹고살면서 먹을 것을 찾아 떠돌다 보니 강변까지 흘러흘러 오게 되었었다.

그리고 밤에 불빛이 켜져 있는 곳을 보고 거기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손자와 함께 가서 문을 두드리니 집 주인이 왜 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보며 “물 건너 오셨지요? 잠깐만 기다리소” 하고는 곧 이어 밥을 주는데 너무 굶주린 터라 정신 없이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밥을 한참 먹고는 정신을 차리고 방을 둘러보니 북한에는 어느 집이나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안 보였었다. 아 이 동네 이상하다... 하는 생각에 그 집주인에게 “이 마을 이름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아빨싸, 중국이었다.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강을 건너고 말았던 것이다.

할머니는 큰일났다는 생각에 손자를 데리고 바로 집을 빠져 나왔었다. 그렇지만 킁킁한 밤중에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숨어야겠다는 생각에 언덕에 올라 숲에 몸을 숨겼다.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니 손자가 부들부들 떠는데 할머니 마음에 밥 얻어먹은 집에 하룻밤만 신세를 질 것을 그랬는가 하며 후회가 되었었다. 그러다가 옷이라도 빌려야겠다고 하고 용기를 내어 언덕을 내려왔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보고 창문을 내리고 한국말로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다. 너무 놀란 할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그 차에 있던 사람이 마을 가지 말고

숨어서 5분만 기다리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숨어 있었더니 과연 차가 다시 와서 할머니와 손자를 태워갔다. 그 차는 두 사람을 멋있는 집에 데리고 갔고 자기는 공주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부러웠다. 이 할머니는 중국에서 탈북해서 공주로 살았다는데 나는 왜 재수 없이 팔려 다니고 시골 촌동네로만 떠돌았는가? 화가 나고 부럽기도 했다. 할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자기가 시킨 대로 하면 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했다. 할머니와 내 모습을 비교하며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어떤 비법이 있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비법이 뭔가?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짧은 문구를 외우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마음에 소원을 다 말하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된다고 했다.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 뜨고 해도 괜찮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중국에서도 워낙 촌동네 살다보니 교회도 없었던지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서 했다. <계속>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이스라엘

Israel



인구: 8,450,000명

기독교 인구: 183,000명(2.2%)

박해정도: 세계 박해 보고서 50위 권 밖

수도: 텔아비브(Tel Aviv)

주 박해 요인: 급진 유대교 및 급진 이슬람

보고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1. 이스라엘 기독교 박해 양상

- 2018년 보고서 조사 기간 동안 보고된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박해를 수치화하였을 때의 평균값은 7.4점이었다.
- 기독교인들은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 내에서 가장 큰 박해를 경험한다. 이것은 특히 유대교와 이슬람 배경을 가진 개종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박해의 양상이다.
- 폭력 지수는 2017년 조사 때보다 3.1점 상승하였는데, 두 건의 교회와 기독교 공동 묘지에 대한 파손 행위, 다섯 건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 그리고 두 건의 메시아닉 유대교(Messianic Jew) 지도자와 구성원의 가택에 대한 파손 행위가 보고되었다.

2. 박해 원인

기독교에 대한 반대와 박해는 폭력적인 종교 단체들에

서 기인한다. 대표적으로는 하레딤(Haredim)이라고도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Ultra-Orthodox Jewish) 단체들(예, Yad Le Achim) 혹은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교 신자들을 반역자로 여기는 개인들이 있다. 잠재적으로는 주기적으로 메시아닉 유대교도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초정통파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슬람 지도자들 모두가 박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관료들은 직접적으로 박해를 가하지는 않더라도, 메시아닉 유대교도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괴롭힘을 허용해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인들의 피해: 2012년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이 종교적,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기독교인 소유의 사유 재산에 대한 파괴 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으나, 이는 유대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초정통파 유대교들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메시아닉 유대교

도들의 회당 앞에서 시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2016년 이후로 이러한 공격 행위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스라엘로 이민 오고자 하는 메시아닉 유대교도들이 신앙을 이유로 거주 허가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도 많았으나, 재판에서는 당국의 이러한 불법적인 결정을 무효화하고 승소한 판례가 다수 있다. 그러나, 이민 후에 시민권이 박탈된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비전통적인 교회들을 비롯한 많은 종파들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종교 단체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그 결과, 결혼, 장례, 종교 행위와 같은 사안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

또한, 지난 3년간 교육부에서는 기독교인 및 교회 소유의 학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상당 부분 줄였고,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많은 교회 소유의 학교들이 정부 소유 공립학교로 그 지위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기독교 학교라는 정체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종교 민족주의(강함):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내 기독교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은 2등 시민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정통파 유대교(Orthodox Judaism)는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 정당들과 비견되고 그들을 견제할 만큼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연립정부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정치 정당들은 국방, 외교, 재정에 관한 부처가 아닌 소위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무부, 교육부와 같은 부처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한다. 이 같은 부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정치 세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 대한 통



제를 가하는데, 특히, 메시아닉 유대교도들이 법적인 지위를 얻지 못하여 차별을 당하도록 유도한다.

이슬람의 억압(중간): 이스라엘 인구의 20%는 무슬림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커 보이나,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이들의 영향력은 주로 아랍 지역과 아랍인이 다수인 마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있을 뿐이다.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를 구성하는 아랍 도시와 마을에서는 이슬람 문화를 강조, 강요하려는 양상은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낸다.

민족간 갈등(중간): 아랍인이나 정통파 유대교도들이 인구의 다수를 구성하는 지역에서는 강한 민족적 문화적 특징들이 드러나며, 이는 의생활, 식생활 등 생활 방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이는 이슬람 혹은 정통파 유대교 배경을 가지며 이와 같은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 개종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3. 조사 기간 동안 보고된 박해의 예

- 한 초정통파 차바드(Chabad) 유대교 활동가는 신약성경 여러 권과 유명한 메시아닉 유대교 지도자들인 에이탄 바르(Eitan Bar)와 모티 바크닌(Moti





Vaknin)의 사진들을 유월절 직전 행사에서 모닥 불에 태우고, 그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 네 건의 교회와 기독교 공동묘지에 대한 파괴 행위와, 다섯 건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가 보고 되었다. 2017년 5월에는 정통파 유대교 시위자들

이 메시아닉 유대교 지도자 및 신자의 가택을 파괴 하였으며, 가택 내 있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위협을 가하였고, 아이들은 추후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아야 했다.

- 2017년 6월에는 정통파 유대교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 집회에 참가한 2명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4. 이스라엘 현 박해 상황

- 기독교인들의 처우에 있어서는 2017년 보고와 2018년 보고 사이에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없었다.
- 기독교인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메시아닉 유대교도들과 이슬람 배경을 가진 개종자들의 수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인구 전체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유대교와 무슬림 가정에 비해 낮은 기독교 가정의 출산율 때문으로 보여진다.
-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무슬림이라는 두 개의 다수 집단 사이에서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며 여러 어려움을 경험한다. 어린 아랍계 기독교인 청소년들은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있으나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소속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급진적 유대교의 시오니즘(Zionism)과 급진적 이슬람주의 사이에서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감에 대한 고민이 늘 있으며, 이주에 대한 바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건과 인터뷰

테러리즘 또는 종교 혐오? 이스라엘 내 반기독교 사건들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다. 한밤중 젊은 남자들 한 무리가 교회를 향해 달려왔다. 그들은 스프레이와 매직펜을 꺼내서 교회 벽과 문 위에 혐오 구호를 적기 시작했다. “신자들은 지옥에 꺼져라!” 다른 이는 성벽 위에 있는 다윗의 별에 이렇게 적었다. “이스라엘의 적인 신자들은 죽어라!”

지난 10년간 이스라엘 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건들이 증가했다가 2016년에 안정되었다. 2009년 이후,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자 44명을 비롯해서 무슬림 빌딩과 재산을 공격했다. 예루살렘의 니고데모스 슈나벨(Nikodemus Schnabel)은 공격받은 교회들을 대신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기독교인이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저에 대한 의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에게 침을 뱉

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흥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동참과 증오라는 양극단의 감정 표현을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는 준비

2015년 6월, 갈릴리 해안에 위치한 타브가(Tabgha)의 오병이어교회 앞마당에 젊은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방화했다. 이로 인해 입구가 완전히 망가졌다. 4세기 빵과 교회 모양의 모자이크로 잘 알려진 교회와 수도원은 다행히도 손상되지 않았으나 전체 피해액은 180만 달러에 달했다. 니고데모스는 가해자들이 사람을 죽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천장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휘발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3-4미터까지 치솟았습니다.”

스프레이로 새긴 증오심

2016년 1월, 예루살렘에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의 벽과 문 23곳에 “신자들은 지옥에 가라,” “신자들이 죽기를, 이스라엘의 이단종교,” “이스라엘의 복수”라는 문구들이 적혔다. 니고데모스는



쓴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가톨릭에게 사망을” 또는 “아르메니아에 사망을”이라는 낙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적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 자신보다 더 초교파적입니다.”

소수파 극단주의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해자들의 공격은 국가 종교 극단주의 소수파이다. 몇몇은 시온산의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다. 그들 중에는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서안지구(West Bank) 거주가 금지된 사람들도 있다. ‘종교 홀리건’처럼 그들은 종교적인 정체성을 다른 이들에 대한 공격으로 것에서 찾는다.

침 뱉는 문제

니고데모스는 문제가 유대인 주류가 아닌 극단주의 소수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 그는 지난 1월 이후 추가로 발생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기독교 성직자들이 유대인 지역을 걸 어갈 때 ‘침 뱉는 문제’가 매일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니고데모스는 거룩한 땅에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정통 유대교 신자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매일 그들은 제 앞 또는 뒤에서 침을 뱉습니다”

44명의 공격에 대한 미처리

2011년에 설립된 라이트 태그(Light Tag)는 이스라엘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하여 일하고 있다. 2009년 이후 공격 당한 44명의 신자들과 무슬림 재산 사건이 발생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또한 팔레스타인 다섯 가정도 공격을 받았다. 라이트 태그 대표 가디 그바리야후는 2015년 7월 팔레스타인 가정에 방화로 인해 식구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보안기관은 제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랍언어로 보이고 아랍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조작적인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후원: 우리은행 1005-701-884976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어린이, 청소년 캠페인 스토리

스토리 1

치복(CHIBOK)의 여자아이들

북 나이지리아, 보르노 주의 치복, 먼지투성이 마을의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어버린 2014년 4월 14일의 끔찍한 밤으로부터 5년이 흘렀다. 무슬림 군인들이 한 밤 중에 쳐들어와 학교를 불태우고 230명의 여자아이들을 트럭에 싣고 사라졌다. 112명의 크리스천 여자아이들은 아직 풀려나지 않았다. 그들 중 몇 명이 살아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야나 가나: 갓 입은 상처는 항상 고통스럽다.

납치 이후 우리가 방문해서 만난 야나 가나(Yana Gana)는 오픈도어 사역자에게 최근 고백했다. “저에게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갓 입은 상처는 항상 고통스럽다는 하우사 속담이 있습니다. 리프카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제 마음 속 깊이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녀에게 딸 리프카투(Rifkatu)가 납치된 일은 1,825일이 지났음에도 갓 입은 상처와 같다. 세 자녀 중 둘째인 리프카투는 비범한 성격을 가졌다. “리프카투는 언니나 동생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브레드렌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녀는 깊은생활예배(Deeper Life Service)에 참석했습니다. 리프카투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딸이 납치되고 우리 집에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식구들 모두 고통에 차 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이기에 특히 저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리프카투의 여동생은 저보다 더 트라우마가 큼니다. 리프카투와 동생의 사이가 각별했거든요. 그들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고 서로 두건도 똑같이 매주고 그랬어요. 그들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매를 본 적이 없어요. 딸이 납치되었을 때, 저는 리프카투의 동생을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녀의 이모들이 그 아이의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녀를 잃을 것 같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를 올라에 있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신은 견뎌야만 합니다. 당신이 일어난 일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인내를 연습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리프카투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리프카투가 산 채로 납치 당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더라도 저는 딸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딸아이를 죽여서 딸아이의 시체를 보여준다면, 그때 저는 딸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멈출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딸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여자아이들이 풀려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리프카투가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보다 더 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이 우리와 고통을 함께 나눠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납치된 여자아이들을 위해 울부짖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치복의 모든 이들이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르노에 홀로 남겨졌다면, 우리 부모들은 모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트라우마 상담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성경공부를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담대하게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내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

와 함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투 다우라: 나는 사라투가 나와 함께 이곳에 있다고 느낀다.

또 다른 엄마 하나투 다우다(Hannatu Dauda)는 말한다.

“크리스천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밖을 걸어다니며, 안에 앉아서, 잠잘 때, 우리의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는 올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아이들을 구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딸아이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아이들이 풀려났을 때 우리가 기뻐한 것처럼, 우리의 딸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자녀들에게 말해왔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사라투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너희는 버려서는 안 된다. 만약 그녀가 풀려난다면 그녀를 꼭 안아주어라. 만약 세상이 그녀를 미워하고 무시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딸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라.'”

사라투의 사진을 보며 하나투는 말했다.

“내가 이 사진을 들고 있을 때면 사라투가 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딸아이가 살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딸아이를 저에게 데려다 주실 거라는 소망이 제 안에 큼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시면 그 어느 날 제 눈물을 모두 닦아 주실 것입니다.”





스토리 2

현장 사역자 인터뷰

Q : 소녀들의 위치와 상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A: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웃 나라 특히 니제르(Niger)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 하람은 나이지리아 군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우 많은 병력과 자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소녀들의 상태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강제 개종 또는 불구로 만들거나 살인을 하는 보고 하람의 방식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32명의 납치된 소녀들 중에 적어도 165명이 기독교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Q : 그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다고 믿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흩어져 있습니까?

A: 치북 부모들의 대표는 소녀들이 여전히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믿을 만한 소식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 이라크 니네베(Nineve, 니느웨)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무장세력 IS의 출현보다 더 앞서 필수적으로 피신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기독교인들은 보고 하람 앞에서 왜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왜 사람들이 아직도 북동부에 있는 겁니까?

A: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보고 하람은

거대한 영역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무장세력 IS가 씨리야에서 한 것처럼 정부 역할을 하지 않고 다만 (간헐적인) 폭동을 일으키고 있기에 기독교인들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주에 있는 그들의 집에 머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격분자들이 돌아와서 어둠을 틈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그들의 집을 지목할 때, 요베(Yobe) 주의 기독교인들은 종종 도망쳐야 합니다. 장난으로 하는 위협이 절대 아닙니다. 만기독교 성향의 폭력은 항상 보고 하람만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방식의 삶을 과격하게 강요하는 것이며 소수종교인들이 떠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발과 도전들을 직면한 많은 이 지역 기독교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버티고 있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박해를 자신들과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값을 지불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에 타버린 후에 한 언급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오픈도어가 이 지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이들 기독교인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믿음의 확고함은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Q : 나이지리아 기독교 지도자들은 치북 소녀들의 납치 사건과 기독교를 향한 보고 하람의 계속된 공격들에 대한 요나단 대통령의 미온적인 반응을 매우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선거가 끝난 즈음에서 오픈도어는 정부에게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A: 오픈도어는 정부가 나이지리아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통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폭력으로 이끄는 절망감을 양산하는 부패정산에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관들이 북부의 불법적인 지역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자신들의 행정에 있어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정부 관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지리아의 선출된 지도자에게 요청하여 치복 소녀들을 찾아서 해방시키는 일에 다시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오픈도어가 나이지리아 북동부 현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유괴된 소녀들의 가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소녀들의 소재나 상태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A: 절대로 부모들은 절망에 빠져있지 않습니다만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는 일과 자신들을 만나지 않는 정부와 지방 정치인들, 그리고 군대의 늦장대응과 효과 없는 대응에 지쳐있습니다. 가장 슬픈 소식은 우리가 이 소녀들의 부모들 중 20명 정도가 지루한 기다림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세뇌가 되어 다른 방식으로 이용당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여전히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이웃 나라에서 갇혀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 검색: 치복 동영상

스토리3

북한 수용소 아이들

북한은 어린이의 인권이 침해되는 곳으로 학교 안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어린이들이 공개 처형을 목격하게 된다. 부모의 처벌로 많은 어린이들 또한 수용소에서 살고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부모가 기독교인으로 처벌되면 자녀들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



북한은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으로 악명이 높다. 정부의 적으로 간주되는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가족 전체와 수용소로 추방된다.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학대받고, 가장 초보적인 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탈당하며,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 청소년기에 이른 소녀들은 교도관들로부터 성적 학대와 강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른이든 아이든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은 고문과 공개처형에 직면한다.

이 수용소들은 북한판 지구 지옥이며, 모든 수용자들이 국가의 발전에 이용되기만 하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그곳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당국의 궁극적인 의도는 그들이 쓰러지거나 아니면 살해될 때까지 인력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려는 것이다.

기독교인 부모를 둔 이유로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참고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어린이의 40%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이며, 5세 이하 어린이의 28%가 만성영양실조, 4%가 급성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후원: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김성태(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픈도어 강의를 신청해주세요

강의 주제

- ▶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실상
- ▶ 북한 기독교인 간증
- ▶ 월남 기독교의 유산과 북한교회
- ▶ 기타

세계 박해와 관련한 강의나 설교를 원하시는
단체, 교회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요청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에서 상단 '요청하기' 클릭
전화: 02) 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전 세계 박해 받는 교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한국 오픈도어 정기후원 안내

소식지 신청 ()		300기도용사 신청 ()		
지 역	선 택	사 역	선 택	후원금액
북한		성경배달		
중앙아시아		제자훈련		
아시아		사회경제 지원		
중동		어린이와 청소년		
아프리카		여성과 치유		
라틴 아메리카		난민과 변호		
이 름			전화번호	
이 메 일			출 금 일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주 소				
은 행	은 행 계 좌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 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어린이, 청소년 캠페인 사역



사역 1

북부 이라크 어린이 성경배달 사역

오픈도어가 2017년에 시작한 이라크 크리스천 성경나눔 프로젝트는 그 동안 수많은 교회들과 사역단체에 지금껏 약 5만권이 넘는 성경을 배포하였으며 이 중에는 신구약성경책뿐만 아니라 어린이 성경책 그리고 바이블 스테디 교재 등 다양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픈도어는 최근 이라크 크리스천 성경나눔 프로젝트 사역자 중 한명인 사자드(Sajjad)를 만나기 위해 북부 이라크 지방을 방문하였다. 파디아(Fadia, 13세)는 성경책을 받고 얘기했다.

“저는 이 책들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사자드는 성경책이 가득 실린 미니버스를 몰며 이라크의 쿠르디스탄(Kurdistan)의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노련하게 운전하고 있었다. 지역 젊은이들에게 크리스천 서적을 나눠주기 위해 크리스천 마을인 말라 바르완(Mala Barwan)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최근까지 메마른 북부 이라크 지방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온 들판과 언덕들이 마치 동면이나 하는 듯 생기 없는 갈색의 먼지로 뒤덮여 보였다. 하지

만 바로 몇 주 전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언덕 위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주님이 주신 생기가 땅에 채워지기 시작함을 알렸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사자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은 200여명의 크리스천 가정의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 그림책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금 더 큰 어린이들은 27가지 성경이야기가 수록된 책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 스스로 성경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목적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오픈도어는 이라크 지방의 지역파트너 사역자들을 통해 크리스천들이 더욱 주안에서 연합되고 강건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니네베(Nineveh, 니스웨) 지방에 거주하던 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2014년 IS의 침공으로 성경책 등을 포함한 많은 소유물을 남겨둔 채 피난을 가야만 했다.

“이런 현실적 상황이 그들에게 이러한 성경 배포사역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배포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그들의 삶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제 꿈은 약 15년 안에 그 씨앗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인이되어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는 성경 배포 사역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확고한 전략을 통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 듣도록 도울 주일학교 교사 등 어린이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다.

우리가 말라 바르완(Mala Barwan) 지방에 도착하자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마을 교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자드는 이런 일에 매우 익숙해 보였다. 몇 명의 청소년들이 버스에서 성경책 박스를 내리자 그는 테이블을 준비하고 어린이들을 순서에 맞게 앉혔다. 각각 최근 진도에 따라 영적 수준이 다른 어린이들이 수준에 맞는 한 두 권의 책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사역은 마치 기름칠을 잘한 기계가 굴러가듯 순조롭게 진행되어갔다.

오픈도어가 성경배포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지역 교회들은 이러한 사역을 도왔는데 파리드(Farid)목사가 그 중 한 명이다.

“우리는 오픈도어가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성경배포



사역을 지원해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받은 후에 우리는 오픈도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하는 오픈도어가 지역교회를 돕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이 나라에 크리스천들을 지원하는 이 사역은 정말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성경배포 사역 이전에도 어린이 사역을 진행했지만 너무 좋아진 것은 그림이 그려진 이야기책들이 아이들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까지 더해지면서 사역이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세의 다니(Dani)는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책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을 도와주셨을 뿐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셨는데 심지어 눈이 먼 사람도 고쳐주셨지요.”

사자드는 어떻게 오픈도어 성경배포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꿈에 나타나셔서 오픈도어 성경배포사역에 제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열정적으로 이 사역에 헌신하게 된 계기입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기에 저는 마음이 더욱 뜨겁습니다. 저는 향후 20년 안에 제가 어린이들에게 뿌린 믿음의 씨앗이 무르익어 주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지원하는 어린이 성경배포 사역은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데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역과 어

린이들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귀한 말씀이 어린이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열매 맺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역 2

방글라데시 무슬림 배경 아이들을 위한 지역 센터들

방글라데시에는 수백 개의 무슬림 배경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합법적 교회들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모이는 지하교회이다. 이러한 교회는 전국에 흩어져 있으나 서로 고립되어 있다.

그들은 자주 박해를 경험한다. 그들은 가능한 공공연하게 매일 무슬림 공동체와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들은 비밀스럽게 조용히 모여 스스로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감추고 있다.

무슬림 배경 신자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교사와 친구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받기도 하며 때로 친구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그들은 협박을 당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빼

앗기며 평등한 처우의 기회를 상실하기도 한다.

무슬림 배경 신자들은 사회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다. 거부당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힘든 것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다. 그들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지만 해답이나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들은 함께 놀 친구가 없고 슬픔을 나눌 사람도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12살 브리스티 아크서(Bristy Akther)의 현실이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 저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미워했고 저희 부모님을 박해했죠. 저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구타당했어요. 우리는 마을을 도망쳐야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러 밤을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



하고 길을 걸었어요. 돈도 없었고 쉴 곳도 없었지요.” 브리스티는 이야기를 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12살에 불과한 삶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겪은 것이다.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제 학교 친구들은 저를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그들은 제게 침을 뱉기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 옆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은 저를 학대했어요. 학교생활은 어려웠고 매일의 삶은 혼란이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어요. 단지 제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요.” 무슬림 배경 신자들은 집에서 예배와 교제를 위해 모인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에 갈 수 없다. 이들 공동체에 아이들을 가르칠 사역자와 기독교 자료가 부족하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울 기회조차 없고 학교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다.

브리스티는 두려워했고 자신을 미워했으며 또한 나가서 노는 것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2세대 기독교 자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린이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미래의 지도자와 목회자가 될 수 있겠는가? 무슬림 배경의 교회들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오픈도어는 지역 교회들과 협력

하여, 박해 받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성경을 가르칠 여러 곳의 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브리스티와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어느 지역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경을 읽는 법도 배우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활동과 운동에 참여한다.

“저는 이제 놀라운 삶을 가지게 되었어요. 매일 저는 공부하고 일하고 놀고 학교에 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해요. 어느 누구도 저희를 학대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아요.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제 삶은 고난과 고생으로 가득했겠지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싶어요.”

브리스티는 또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이 지역 센터를 사랑해요. 저는 꿈을 찾았고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시편 23편 1절을 사랑해요. 저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위해 주실 거예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고 구원자예요. 그는 신실하게 저를 지키고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후원: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김성태(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국내 사역자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방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회계 및 프로젝트 담당 (전임)	선교 관련 연구원 (전임 또는 파트)
모집인원	- ○명	- ○명
주요업무	- 일반회계업무 - 선교 관련 프로젝트 관리 (예산 및 집행 관련 실무)	-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 선교 현장 관련 연구과제 및 관련 사무업무 수행
지원자격	- 회계 관련 전공자 혹은 경력자 - 영어 업무 가능자 (해외본부 기준에 따른 업무간 영어사용 필수)	-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및 관련 학문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 외국계 기업 등 영어사용 업무 환경에서 3년 이상 경력인 자	- 관련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연구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
사역조건	- 4대보험 지원, 주 5일 근무, 급여 개별 협의	- 전임: 4대 보험 지원, 주 5일 근무, 급여 개별 협의- 파트: 근무시간 및 급여 협의
공통사항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공지사항 게시판))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기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모집기한 : 구인 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오픈도어 사무실을 후원해주세요



선교회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지 역: 서울 및 인근지역

기 간: 5년



선교회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700백만원

은 행: 신한은행

계 좌: 100-027-607588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2				3	
1							
4				6			
5							
				7			8
	9						
	10						

● 가로열쇠

1. 신약성경 유일의 예언서이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저자는 당시 밧모 섬에서 약 18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본 서신은 밧모 섬에서 기록되었거나 유배가 끝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약속, 계약, 맹세를 뜻한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으로써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출발한다. 이 ○○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
5.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 사람이다. 본명은 요셉이며, 마가 요한의 숙부이다. 그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동역했으며,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나기도 한 인물이다.
6.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바사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다. 총리 대신 하만의 유대인 말살 정책 계획을 에스더와 함께 막아 유대인을 구원한 인물이다.
7. 소아시아 중심부 남쪽에 위치한 대도시이다. 에베소에서 다 소로 향하는 로마 가도의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다.(행 13:51) 바울의 1, 2차 선교여행의 주요 행선지이며, 소아시아 복음 전도의 중심지이기도 했다.(행14:1-5)
10.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으로써, 므낫세 지파의 족장이다.(민34:23)

● 세로열쇠

2.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 명령으로써(출20:3-17) 모세 율법의 핵심이요, 근간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1885년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서양인 선교사이다. 한국명은 원두우(元杜尤)이다. 다양한 선교활동과 함께 조선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의 한국사랑은 현재 4대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4. '열리랴'는 뜻의 아람어이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 고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막7:31-37)
6.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로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한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로 언급되고 있다.(마21:42, 행4:11, 엡2:20)
8.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써(갈5:23) 예수님께서 지닌 성품 중 하나이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을 뜻한다.
9. 2002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 World Watch List 박해순위 1위 국가이다. 키워드: 공산국가, 독재정치, 주체사상

지 난 주 정답

르	호	붓		오	병	이	어
	산		암				린
	나	오	미				양
			엘		로		
					고		
	아	프	가	니	스	탄	
조							
카	타	콤		기	도	용	사

5월호 당첨자

염*경 (9809), 김*화(민*숙) (0636), 김*화(김*덕) (0624)님 축하 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아래 E-mail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 odsk@opendoors.or.kr (마감 : 2019년 6월 10일)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0일(1박 2일)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3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10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박해의 숨은 희생자 어린이·청소년 돕기 캠페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박해에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신앙과 삶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 ▶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 ▶ 부모의 희생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김성태(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픈도어선교회의
정기후원자가 되시면,
전 세계의 박해 지역의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려 ...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비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은행:	은행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